

복날의 기원과 **견공의 수난**



박재학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한국실험동물학회 이사장
pjhak@snu.ac.kr



박재학, 김창환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며칠 전에 말복이 지나면서 길지는 않았지만 상당했던 올해의 더위도 끝나가고 있다. 우리는 예로부터 복날을 꼭 챙겼는데 사람들은 그 기원이라든가 의미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그저 몸보신만이 관심사이다.

복날의 기원을 제대로 알려면 節氣와 干支 그리고 五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節氣는 역대 중국의 대표적인 수도였던 장안을 기준으로 하여 해의 궤도(사실은 지구의 공전 궤도)를 따라 정해졌기 때문에 동양의 양력인 셈이다. 절기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氣候라는 단어의 함의를 이해해야 한다. 氣候의 '候'는 기상이 변화하는 징후를 말한다. 1候는 5일로서 기상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최소 단위로 1년에 72候가 있다. 3候는 기상의 변화를 확실하게 감지할 수 있으며 1氣라고 하니 1년에 24氣가 있다. 6氣가 1季節이 되고 4季節이 1년이 되는 것이다. 4계절과 24절기를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름은 양력 7월에 끝나고 8월부터는 가을 문턱으로 들어간다. 아래의 오행에서 설명하겠지만 여름은 五行 중 火에 해당하고 가을은 金에 해당한다.

春	2	立春 : 봄의 시작 (立春 시작의 뜻)	雨水 : 비가 내려 얼음을 녹인다
	3	驚蟄 : 벌레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	春分 :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
	4	清明 : 날씨가 맑고 밝다	穀雨 : 비가 내려 곡식이 싹튼다.
夏	5	立夏 : 여름의 시작	小滿 : 곡식이 알차게 되는 시기
	6	芒種 : 보리를 수확하고 볍씨를 뿌린다	夏至 :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
	7	小暑 : 상당히 덥다	大暑 : 매우 덥다
秋	8	立秋 : 가을의 시작	處暑 : 더위를 처리한다
	9	白露 : 하얀 이슬이 내린다	秋分 :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
	10	寒露 : 찬이슬이 맺힌다	霜降 : 서리가 내린다
冬	11	立冬 : 겨울의 시작	小雪 :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12	大雪 : 눈이 많이 내린다	冬至 : 낮의 길이가 가장 짧다(한해의 시작. 甲子年 甲子月 甲子日 甲子時가 天地開闢이 된 날이다)
	1	小寒 : 상당히 춥다	大寒 : 매우 춥다

干支는 十干과 十二支로 나뉜다. 十干은 갑(甲)·을(乙)·병(丙)·정(丁)·무(戊)·기(己)·경(庚)·신(辛)·임(壬)·계(癸)로, 十二支는 자(子)·축(丑)·인(寅)·묘(卯)·진(辰)·사(巳)·오(午)·미(未)·신(申)·유(酉)·술(戌)·해(亥)로 이루어져있다. 十干의 甲乙, 丙丁, 戊己, 庚申, 壬癸는 아래 표와 같이 방위와 계절, 오행, 색, 덕성을 나타낸다.

甲乙	東, 春, 木, 靑, 仁
丙丁	南, 夏, 火, 赤, 禮
戊己	中, 네 계절의 바탕, 土, 黃, 信
庚辛	西, 秋, 金, 白, 義
壬癸	北, 冬, 水, 黑, 智

五行은 木火土金水로서 五行相生과 五行相剋으로 상호간의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오행상생(五行相生)은 목생화(木生火), 화생토(火生土), 토생금(土生金), 금생수(金生水), 수생목(水生木)으로 변화되는 이론이다. 상생의 기운이 서로 작용을 한다면 서로 도움이 된다. 오행상극(五行相克)은 목극토(木克土), 토극수(土克水), 수극화(水克火), 화극금(火克金), 금극목(金克木)으로 작용하는데 이것은 상극의 대상을 억누르고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初伏은 夏至가 지난뒤 세 번째 庚日(하지 지난 후 20-30일 사이)이고 中伏은 네 번째 庚日(夏至후 30-40일, 초복후 10일)이며, 末伏은 立秋가 지나고 첫 번째 庚日(중복과 말복사이에 10일 또는 20일)이다. 올해는 하지(6월 21일)를 지나 세 번째 경일인 7월13일(庚辰日)이 초복이었고 네 번째 경일인 7월 23일(庚寅日)이 중복, 그리고 입추(8월 7일)를 지나 후 첫 번째 경일인 8월12일(庚戌日)이 말복이었다.

庚日은 五行의 金[가을]에 해당하고 金이 두려워하는 것이 火[여름]이므로(火克金), 庚이 들어가는 날은 金氣가 火[더위]에 대하여 맥을 못 춘다 (金氣伏藏 금기복장: 가을기운[金氣]이 엎드려 맥을 못 춘다.) 그리하여 여름에 억눌린 가을의 기운에게 보양을 해주고 힘을 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여 龍鳳湯(가물치와 꿩의 요리), 蓼鷄湯(6년근 인삼과 영계) 또는 補身湯(黃狗)을 먹어오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몸이 허약하다고 느끼면 복날뿐만이 아니라 상시 몸보신을 원하고 황구뿐만이 아니라 시추도 잡아먹는 판이다. 수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아파서 병원에 들어온 환견과 시장에서 도축된 황구가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 똑같은 개다. 개는 사람들과 감정적인 교감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동물이다. 어린아이가 기분이 울적할 때 강아지가 옆에서 친구가 되어준다. 독거노인

의 옆에서 다정한 친구가 되어 주기도 하고, 맹인의 길을 안내해주는 인도견, 군견, 마약탐지견 같은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개들도 있다. 이렇듯 많은 교감을 해온 동물을 잡아먹는 것은 군자답지 못하다.

맹자는 일찍이, 동물에 대해서 측은지심을 보였던 제(齊)나라 선왕(宣王)에 대해, 그런 마음이 바로 훌륭한 임금(仁君)이 되고 어진 정치[인정(仁政)]를 이룰 수 있는 바탕이라고 하였다. 《맹자》의 梁惠王章句上的 6장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나온다.

齊宣王이 問曰齊桓晉文之事를 可得聞乎잇가

제 선왕이 물었다. “제 환공과 진 문공의 업적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孟子 對曰仲尼之徒 無道桓文之事者라 是以로 後世에 無傳焉하니 臣이 未之聞也호니 無以 則王乎인저

맹자가 대답하였다. “공자의 제자들이 제 환공과 진 문공의 업적을 말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세에 전해진 바가 없어서 제가 들은 바가 없으나, 그만두지 말고 계속 하라고 하신다면 왕천하(王天下:어진 정치를 하여 천하를 소유하고 다스리는 것)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曰德이 何如則可以王矣잇가 曰保民而王이면 莫之能禦也리다

왕이 말하기를, “덕이 어떠하면 왕천하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자, 맹자가 “백성을 보살펴주어 왕천하하게 되면 그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曰若寡人者도 可以保民乎哉잇가 曰可하니다 曰何由로 知吾의 可也잇고 曰臣이 聞之胡齟호니 曰王이 坐於堂上이어늘 有牽牛而過堂下者러니 王이 見之하시고 曰牛는 何之오 對曰將以鬻鐘이니다 王曰舍之하라 吾 不忍其觫若無罪而就死地하노라 對曰然則廢鬻鐘與잇가 曰何可廢也리오 以羊易之라 하시니 不識케이다 有諸잇가

왕이 말하기를, “나 같은 사람도 백성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자 맹자가 “가능합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무슨 연유로 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아십니까?”라고 하자, 맹자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가 호흠에게서 들었는데, 왕께서 당상에 앉아 계실 때 소를 끌고 당하를 지나는 자가 있었습니다. 왕께서 이것을 보시고 “소는 어디로 가는가”하고 묻자 대답하기를, “장차 이 소를 가지고 종의 뜰에 피를 바를 것입니다”라 하였고 왕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소를 풀어주어라. 나는 그 소가 벌벌 떨면서 죄도 없는데 사지로 가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라 하였고 대답하기를, “그러면 종의 뜰에 피를 바르는 일을 폐지하오리까”라고 하였고 왕께서는, “어떻게 폐지할 수 있겠는가. 양으로 소를 바꾸어라”라고 하셨는데, 잘 알지 못하겠습니까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日有之하니이다 日是心이 足以王矣리이다 百姓은 皆以王爲 愛也어니와 臣은 固知王之不忍也하노이다

왕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라고 하자 맹자가 말하기를, “이런 마음 이 바로 왕천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은 모두 왕께서 아껴서 그랬 다고 하지만 저는 진실로 왕께서 차마 하지 못하신 것을 압니다”라고 하였다.

王曰然하다 誠有百姓者로다미는 齊國이 雖褊小나 吾何愛一牛 리오 卽不忍其觳觫 若無罪而就死地라 故로 以羊易之也호이다

왕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진실로 백성 중에 그런 자가 있겠습니까 다마는 제나라가 비록 좁고 작으나 내가 어찌 한 마리의 소를 아끼겠 습니까. 바로 그것이 벌벌 떨면서 죄도 없는데 사지로 가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양으로 소를 바꾸게 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日王은 無異於百姓之以王爲愛也하소서 以小易大어니 彼惡知 之리잇고 王若隱其無罪而就死地則牛羊을 何擇焉이리잇고 王 笑曰是誠何心哉런고 我非愛其財而易之以羊也언미는 宜乎百 姓之謂我愛也로다

맹자가 말하기를, “왕께서는 백성들이 왕께서 아껴서 그랬다고 한 것 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소서. 작은 양으로 큰 소와 바꿨으니 저들이 어 찌 그것(왕이 차마 보지 못해서 한 마음)을 알겠습니까. 왕께서 만일 그 소가 죄도 없이 사지로 가는 것을 측은해 하셨다면 소와 양을 어 찌 구분하셨습니까?”라고 하였다. 왕이 웃으며 말하기를, “이것은 진 실로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그 재물을 아껴서 양으로 바꾸게 한 것은 아니었는데, 백성들이 내가 아껴서 그랬다고 하는 것이 마땅하 겠습니다”라고 하였다.(왕 스스로가 자기가 측은지심이 발동한 이유 를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였다.)

日無傷也라 是乃仁術也니 見牛코 未見羊也일새니 君子之於 禽獸也에 見其生하고 不忍見其死하며 聞其聲하고 不忍食其 肉하니니 是以로 君子는 遠庖廚也니이다

맹자가 말하기를, “(백성들이 그러더라도) 무방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을 이루는 방법이니 소는 (벌벌 떨면서 죄도 없이 사지로 가는 것 을) 보았고 (그래서 측은지심이 발동하였고) 양은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군자는 금수에 대하여 그것들이 산 것을 보고는 그것들 이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며 그것들이 죽으면서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는 차마 그 고기를 먹지 못하니 이 때문에 군자는 주방을 멀리하 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맹자와 제선왕의 대화를 보면 그 옛날 전국시 대에도 사람들이 동물에 대한 측은지심(惻隱之心)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은 인간이 가진 고귀하고 선한 마음이다. 맹자는 이러한 생각을 확충해야한다고 말한

다. 擴而充之는 맹자의 기본 논리이다(擴充論理). 소가 벌벌 떨면서 죄도 없이 사지로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확 대하여 사람에게 베풀면 인정(仁政)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왕천하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이다. 맹자는 본시 부모를 모시는 마음을 확충하여 백성을 사랑하고 나아가서는 동물까 지 사랑하게 된다(親親, 人民, 愛物)고 하였다. 즉 差等愛를 주장하였다. 《맹자》의 이 구절에 대해 주자는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왕이 소가 벌벌 떠는 것을 보고 차마 죽이지 못한 것은 소위 측은지심으로서 인의 발단이다. 이것을 확충한다면 四海를 보 호할 것이다. 그러므로 맹자가 이것을 가리켜 말씀하여, 왕이 이에 대해 살펴 알아 그것을 확충하기를 바랐던 것이다.(王見 牛之觳觫而不忍殺 卽所謂惻隱之心 仁之端也. 擴而充之 則可 以保四海矣. 故孟子指而言之 欲王察識於此 而擴充之也.)

사람은 금수에 대하여 생존을 같이 하지만 종류를 달리 한 다.[같은 생명체로 살아가지만 종류가 다르다는 뜻이다.] (그 리므로 잡아먹을 수 있다). 그래서 쓰기를 예로써 하고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이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보고 들음이 미 치는 바에 베풀어지는 것이다.(蓋人之於禽獸 同生而異類 故 用之以禮 而不忍之心 施於見聞之所及.)

사람과 가장 친근한 동물로서 즐거울 때, 기쁠 때, 배고플 때, 아플 때, 힘들 때를 함께 하는 개를 도축하여 잡아먹는 것 은 인간의 마음에 본래부터 있었던 측은지심의 선한 마음을 해치는 것이다. 개 대신 그 즐거워하는 모습이나 비명소리를 접하지 않은 소나 돼지 닭을 보신용으로 잡아먹는 것이 군자 다운 행동이라고 맹자는 말씀하실 것 같다.

서곡 박재학교수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이다.

한산 김창환선생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불어교육과를 졸업 하였다. 민족문화추진위원회 (현, 한국고전번역원) 국역연 수원에서 유가 경전과 제자백가 등을 공부 한 뒤에 서울대학 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에서 중국고전문학을 전공하였다. 서 울대학교 사범대학 중국어교사 특별양성과정에서 초빙교수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중국어문학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중문과에서 강의하고 있 다. 지은 책으로는 《도연명의 사상과 문학》, 《중국의 명 문장 감상》, 《중국어 유래 어휘사전》 등이 있고 옮긴 책 으로는 《장자》가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 〈논어를 통해 살핀 공자의 교수법〉, 〈맹자의 확충논리〉 등이 있다.☺